

‘K-MOOC 리스크 관리의 이해 및 응용’ 학습 소감



최성규

(K-Risk 교육위원회
위원장/법학박사, ARS)
koreaclf@daum.net

금방 끝나리라고 예상했던 코로나 19 팬데믹이 어느새 3년째 되어 간다. 이제는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교육도 그렇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병존(並存)하던 방식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제공된 임종권 교수님(K-RISK 회장)의 ‘리스크 관리의 이해 및 응용’ 강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상황에 맞추어 대면 교육 못지 않은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

주) K-MOOC는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어로 ‘한국형 무제한 공개된 인터넷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강의는 크게 6장으로 구분되어, 리스크 관리가 무엇인지 그 개요부터 시작하여, 리스크 관리의 표준양식인 ISO 31000, 프로젝트 관리와 리스크 관리의 관계,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기준, 워크숍 기반 리스크 관리 기법에 이르기까지 강의 제목 그대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고, 퀴즈와 과제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필자는 대학원 졸업 이후 건설업 분야의 클레임 관리와 계약관리 경험을 한 지 15년 정도 되었고,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클레임 관리와 연결된 비용관리, 일정관리를 공부하고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마땅히 공부나 경험을 하기 어렵던 차에 2020년부터 K-RISK의 리스크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접하여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 바로 직후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대면 교육이 상당히 제한되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서 웨비나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으나, 실시간(Real Time) 교육인 만큼 학습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다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오랜 시간 고민하거나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반면 본 K-MOOC 교육은 인터넷 강의의 장점을 살려, 중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가 무엇인지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물론 현장에서 리스크 관리자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이후의 후속 강의를 계속 연계되어 더 많은 분들이 단계적으로 리스크 관리 교육을 받고 실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